

“한국의 무도정신 제대로 배워 갑니다”

구미1대학·스페인합기도 무도 세미나 수료식
(사)스페인합기도협회 회원 15명 교류 방문



“합기도의 본고장, 대한민국의 무도정신을 제대로 배워 갑니다.”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으로 전국 최고의 취업률을 자랑하는 구미1대학이 최근 해외 단체와의 스포츠교류를 통해 글로벌대학으로서의 입지를 높여가고 있다. 구미1대학은 지난 10일 스페인합기도 무도·세미나 수료식을 개최했다.

(사)스페인합기도협회(회장 조두형·사진) 회원 15명이 내방해 11박 12일의 일정으로 실시된 이번 행사는 2009년 양 기관이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첫 교류행사를 가진 이후, 올해로 3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 조두형 스페인합기도협회장과 회원들은 지난 달 31일 한국에 입국해 이

달 1일부터 10일까지 10일 동안 구미1대학 경호스포츠과(학과장 김기수) 학생들과 무도 수련 및 문화유적지 탐방 행사 등을 가졌다.

스페인 현지 경찰에서부터 의사, 공무원 등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회원들로 구성된 이번 방문단은 합기도의 본고장인 한국의 전통 무예와 무도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올바른 자세를 배우고 전통문화를 체득하는 수련 행사를 가졌다.

3년째 교류행사에 참석하고 있는 조두형 스페인합기도협회장은 “구미1대학과 3년 전, 협약을 체결한 후 매년 양 기관의 친선행사를 갖고 있다. 무예인으로서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30여

년을 생활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민간 외교관으로서 역할을 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수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은 정창주 총장님과 경호스포츠학과 교수 및 재학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정창주 구미1대학 총장은 수료식 인사말에서 “비쁜 일정에도 대학을 방문해 주신 스페인합기도협회 조두형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본인 또한 합기도를 연마(공인 8단)한 무도인의 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전통 문화를 많이 보고 배우고 가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스페인합기도협회 회원들은 지난 6일~7일 문화탐방의 일환으로 경주국립공원, 해운대 등 지역의 전통 사찰과 유원지 등을 둘러보고 11일 스페인으로 출국했다.

정재훈 기자

gamum10@hanmail.net